



김 홍 기 | 공학박사
광주광역시 생태하천수질과장
(gjk1111@korea.kr)

잊혀져가는 광주천의 옛 모습을 찾아서

“강변 백사장에는 ‘말시바이(곡마단)’의 천막이 들어서서 트럼펫의
구슬픈 가락이 온 동네 사람들의 가슴을 들먹이게 했다. 해방 후에는
천변에서 가설무대를 차리고 약장수들이 만담과 노래로 손님들
을 끌어 모았는데 인근의 한가한 노인들과 부인들까지 모여들게 되
었다.”

-박선홍의 「광주1백년」-

광주천 백사장은 광주시민들의 놀이터임과 동시에 구한
말 의병항쟁과 광주학생독립운동, 3·1운동의 중심지,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 등 유독이도 가슴이 저리면서도 자랑스런
기억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치수 위주의 하천관리
정책으로 직강화되고, 산업화로 도시인구가 증가하면서 오



〈그림 1〉 광주천 노천시장



〈그림 2〉 빨래하는 부녀자들

염물질이 광주천으로 유입함에 따라 광주천의 옛 모습은 사
진과 문헌 속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산업화와 인간의 이기심으로 신음하고 있는
광주천의 옛 모습을 그려보며, 광주 시민의 아련한 추억 속에
묻혀져 있는 옛 기억을 되살려 보고자 한다.

묻혀버린 광주천 옛 이름, 조탄(漕灘)

광주천은 영산강의 지류로서 무등산 장불재로 넘어가는
해발 800m 지점의 샘골에서 발원하여 광주 시내의 중심부를
흐르다 누문동에서 동계천과 만나고, 광천동에서 용봉천과
만나 흐르다 유덕동에서 극락강에 합류하여 영산강으로 흘

러가는 연장 18km에 달하는 광주의 젓줄이다.



〈그림 3〉 광주천 발원지 '샘골'

광주천이라는 이름은 일제 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조선시대 문헌에서는 건천(乾川)이라는 이름이 많이 거론되고 있으나 지난 세기부터 지금껏 사람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이름은 조탄 혹은 조탄강이다.

당시 광주천을 조탄강이라고 하였는데 제방을 쌓기 이전이라 꼬불꼬불 99곡을 이루었으며 강폭은 지금의 5배도 넓었다. 다리라곤 듕성듬성 얇은 나무다리. 그것도 광주대교 근처에 하나뿐이고 모두 징검다리였다. 따라서 사직공원 동편 양림동 오거리 근처와 한일극장(편저, 현재 금호생명빌딩 부근)에서 있는 양동 일대가 모두 하천 부지였으며 추석이나 정월 보름이면 강변 백사장에서 줄다리를 했고, 불놀이와 농악놀이 등의 민속잔치가 펼쳐졌다.

- 박선희의 「광주1백년」 -

조탄에는 수리시설의 일종인 보(洑)가 조탄보, 전천보 등 여러 개 있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그 중 조탄보(또는 조참보)는 많은 기록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탄보 주변에는

고목이 울창하게 우거지고 그 밑에 넓고 깊은 웅덩이가 생겨 하루노야란 요릿집에서 수상누각을 지어 뱃놀이를 즐겼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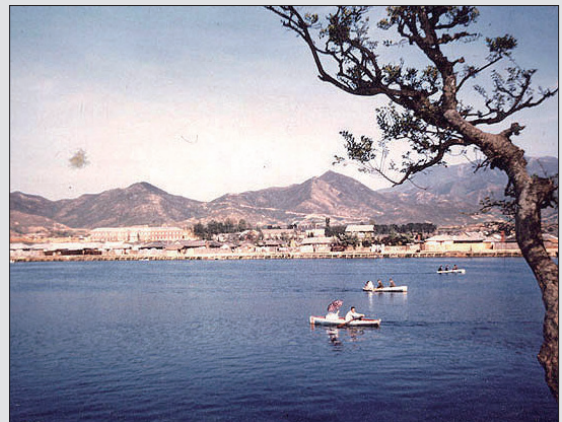
사라져 버린 경양방죽

전주에는 덕진호가 있고, 춘천에는 소양호가 있으며, 광주에는 보문호가 있다. 이들 모두가 인공호수이지만 오늘날 그 도시를 대표하는 명물로 자리 잡았다. 만일 역사가 빼먹대지만 않았더라면 광주에도 이런 큰 호수가 있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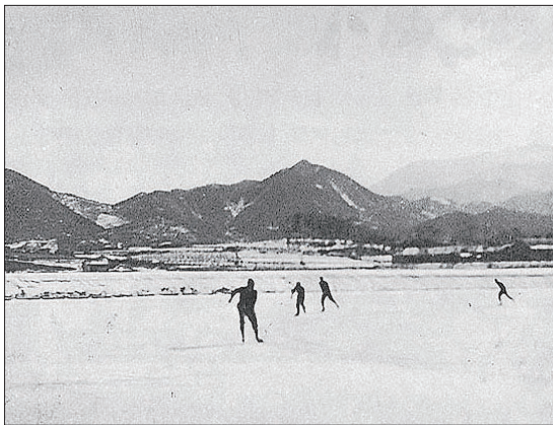


〈그림 4〉 조참보의 모습(1920년)

광주에도 있을 법한 큰 호수가 아니라 광주에도 있었던 큰 호수가 경양방죽이다. 경양방죽은 조선조 세종 22년(1440년) 광주목사(光州牧使) 김 방(金 倣)이 세종의 증농정책에 따라 2년만의 공사 끝에 수심 10m, 면적은 4만6천여 평으로 조성한 인공호수이다.



〈그림 5〉 경양방죽만수시 보트 타는 모습



〈그림 6〉 겨울철 경양방죽에서 스케이트 타는 모습

경양방죽의 물은 인근 1천 1백50마지기의 논에 물을 댄으로써 광주 서북부 평야의 가뭄을 이겨내고, 광주천의 홍수 피해를 막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또한 독 양쪽에는 방풍을 위해 수많은 나무가 줄지어 서 있었고, 수령도 2백~3백년이 된 거목들이 숲을 이루었다고 한다.

이처럼 치수, 이수 및 생태환경적으로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경양방죽은 두 차례에 걸쳐 매립되어 지금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첫 번째로는 1935년 10월 광주읍이 광주부로 승격되면서 당시의 야지마 전라남도지사가 신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3분의 2를 매립하였고, 두 번째로 1966년도에는 광주시가 농업용 저수지로서 기능이 약화되고, 쓰레기 등으로 악취와 수질오염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인근 태봉산을 깎아 확보한 토사를 이용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생각건대 광주 도심에 4만여 평의 호수와 주위에 수령이 3백~4백년 된 숲이 지금도 보존되어 있었다면 지금의 광주천 모습은 아닐 것이 분명하기에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

직강화되고 주요 지류 폐천으로 잊혀져가는 광주천

제방을 쌓기 이전의 광주천 모습은 꼬불꼬불 99곡을 이루었으며 강폭은 지금의 5배도 넓었다.



그러나 한국판 쓰나미라 일컬어지고 있는 을축년(1925년) 대홍수는 광주천도 피해갈 수 없었던 것 같다. 그해 8월 마리아나(Mariana)제도 부근에서 발생한 열대성저기압으로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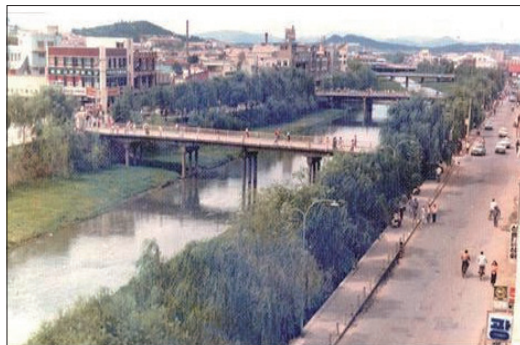


〈그림 7〉 광주천 정비사진(1946년)

해 지금의 충장로는 물론 광천터미널까지 범람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광주천의 옛 모습을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그 첫 번째로는 치수 위주의 직강화한 광주천 개수사업이다. 1926년부터 3년에 걸쳐 도심구간의 하상을 굴착하고 양안으로 제방을 쌓아 광주천을 직강화하는 정비사업이 시행됐고, 1936년에는 전구간의 광주천 개수공사가 실시됐다.

두 번째로는 광주천 주요지류 복개사업이다. 광주의 인구가 50만이 넘어가는 70년대에 양동 부근의 광주천 부분복개를 시작으로 1985년부터 광주천 주요 지류(1987년 경양지천, 1991년 동계천, 1992년 서방천, 1994년 극락천)들과 1997년 용봉천까지 복개하였다. 그 결과 광주천의 주요 지류는 하수구로 전락하고, 폐천되어 그 위는 도로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림 8〉 1970년대 광주천의 모습

맺으며

치수 위주의 정책과 인간 이기주의로 잃어버리고 잊혀져가는 '광주천을 되살려야 한다'라고 깨닫기까지는 그리 많은 세월이 필요치 않았던 것 같다.

광주시는 2000년 이후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천 유수의 추가확보, 친수 공간조성 등 자연형 하천 사업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생태계의 교란과 파괴의 정도가 너무도 심하고, 물 그릇이라 할 수 있는 유역환경이 너무나 바뀌어 한꺼번에 자연하천으로 되돌아가기는 쉽지 않은 문제

인 것 같다.

이를 위해 1급수인 주암호 원수 공급을 시작으로 경관개선 및 수질개선 사업, 광주천 사랑 시민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복개하천의 현황 파악과 문제점에 대한 대안 마련을 통해 광주천이 옛 모습을 조금씩 찾아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더 나아가 우리는 광주천이 생명의 물길이고, 나아가 생명을 가진 물길, 즉 '생명이 살아 숨쉬는 광주천'으로 만들어 잊혀져가는 광주천의 기억을 조금씩 되살려보고자 한다. 🌊